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267-308
<https://doi.org/10.29212/mh.2024..131.2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딜레마

김경민 | 연세대

- 목 차
1. 들어가며
 2. 1981년 국방백서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해군력 감축 계획
 3. 포클랜드 전쟁의 경과와 전쟁 양상
 4. 포클랜드 전쟁으로 본 영국 해군 전력에 관한 분석
 5. 나가며

초 록 그동안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들은 군사, 역사, 외교, 정치,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본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포클랜드 전쟁의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원정 작전으로 본질적으로 해전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따라서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해군의 전력에 대한 이해는 전쟁의 성격과

영국 국방정책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국방부장관 존 노트에 의해 발간된 국방백서 『영국 국방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계획된 해군력 감축 문제로 온전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본 논문은 1981년 국방백서의 내용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전력을 분석하여, 그 전쟁의 양상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방백서에 언급된 해군력 감축 내용과 영국의 국방계획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포클랜드 전쟁 경과를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전쟁 이후 드러난 영국 해군 전력의 문제점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 고찰한다.

주제어 : 포클랜드 전쟁, 영국 해군, 존 노트, 1981년 국방백서, 국방정책

1. 들어가며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포클랜드 제도(Falklands Islands)¹⁾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the Falklands War/Guerra de las Malvinas)’²⁾이 벌어졌다.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이곳을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 점령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6월 14일 최종적으로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포클랜드 전쟁은 20세기 후반 영국이 원거리 작전 지역에서 단독으로 대규모의 전방위적인 군사 행동을 전개한 무력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은 물론 현대 전쟁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포클랜드는 유럽의 해외 식민지 경쟁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16세기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간의 사소한 분쟁의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영토 분쟁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 열강들은 포클랜드 제도를 대서양 남부 해협과 케이프 혼으로 통하는 주요 접근 지점으로 간주했다.³⁾ 프랑스는 동포클랜드를 최초로 식민지화했지만 1767년 이 섬을 장악한 스페인의 항의와 보상 끝에 결국 철수했고, 영국은 1760년대

1)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북서쪽으로 480km 떨어져 있는 제도로 주요섬인 이스트포클랜드(East Falklands)·웨스트포클랜드(West Falklands) 섬과 200여 개의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남미권에서는 포클랜드 제도를 말비나스로 지칭하며 따라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명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클랜드 전쟁으로 통일한다.

3) Jorge O. Laucirica, “Lessons From Failure: The Falklands/Malvinas Conflict,” *Seton Hall Journa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2000): 79-80.

중반에 서포클랜드와 인근 섬을 점령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오랜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포클랜드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이 아르헨티나로 계승되어 자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입장인 반면,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 이전 400년 동안 섬을 점령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 1982년 기준으로 약 150년 이전부터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 아르헨티나는 1965년 이 문제를 유엔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포클랜드 전쟁 전까지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다.⁴⁾

아르헨티나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포클랜드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것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기인했다. 아르헨티나는 전 대통령 후안 페론(Juan Perón)의 미망인이었던 이사벨 페론(Isabel Perón) 대통령이 1976년 군부에 의해 축출되면서 군부정권으로 교체되었고, 포클랜드 전쟁 직전인 1981년 12월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갈티에리 정권은 산업 생산량 감소, 임금 하락, 실업률 상승,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통치에 실패하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다. 군부는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갈티에리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폭 하락하면서 내정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갈티에리는 국내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말비나스 침공을 결정하게 되었다.⁵⁾

4) Steven G. Stransky,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40 (2012): 474-476.

5) 아르헨티나 전쟁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Stransky,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이 전쟁은 1982년 당시 영국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다. 당시 영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국제관계의 핵심은 서방 진영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냉전 상황에 있었다.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세계가 양분된 20세기 말의 냉전 상황에서, 포클랜드 전쟁의 당사국인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서방측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 주었다.⁶⁾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전쟁은 당시 영국 국방전략의 핵심에서 벗어난 영역이었다. 영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의 전략을 중심으로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 Organization)’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 국방에 있어 최우선 과제였다. 1982년 당시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영국 또한 장기간 지속된 냉전 상황 속에서 동서 대결이라는 전략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미국과 나토 대 소비에트 연방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명료한 이분법적 대결 구도는 오히려 그 외 다른 세계가 안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었다.⁷⁾

영국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포클랜드 제도를 탈환하며 승전의 기쁨을 누렸지만, 대치 내각은 냉전 구도에서 벗어난 이 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전후 일부 수정된 국방전략 등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483-501.

6) Sophie Thérèse Ambler, Thomas C.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11-12.

7) 1998년 Strategic Defence Review는 이분법적 냉전구도가 잠재적인 안보 위협성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The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8/91, *The Strategic Defence Review White Paper 1998*, 14.

포클랜드 전쟁 전반에 관해 야당인 노동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기존 국방전략을 고수했고, 그 결과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의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전후 인과관계로 따질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그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은 군사적으로 영국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

그동안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들은 군사, 역사, 외교, 정치,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본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포클랜드 전쟁의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원정 작전으로 본질적으로 해전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따라서 포클랜드 전쟁 전후 영국 해군의 전력에 대한 이해는 전쟁의 성격과 영국 국방정책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국방부장관 존 노트(John Nott)에 의해 발간된 국방백서 『영국 국방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에 계획된 해군력 감축 문제로 온전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본 논문은 1981년 국방백서의 내용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전력을 분석하여, 전쟁이 영국 해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전쟁의 양상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방백서에 언급된 해군력 감축 내용과 영국의 국방계획을

8) Ambler,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7-13.

분석하고, 3장에서는 포클랜드 전쟁 경과를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전쟁 이후 드러난 영국 해군 전력의 문제점이 1981년 국방백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 고찰한다.

2. 1981년 국방백서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의 해군력 감축 계획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논쟁에서 단연 핵심이 되는 것은 전쟁 발발 직전 해인 1981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인 『영국 국방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내용이었다. 총리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국방부장관 존 노트(John Nott)의 주도하에 작성된 이 국방백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나토 임무에의 집중과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이었다.⁹⁾ 이 중 국방예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보 측면에서 자원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방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9)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Cmnd 8288 (London: HMSO, 1981), 3.

4. 첫째, 우리가 할당할 계획인 자원이 증가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군 구조와 개선 계획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비용 증가, 특히 장비의 증가입니다. ...

5. 첫 번째 이유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변화의 이유는 프로그램 내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국방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장거리에서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현대 무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기나 수상함 등 주요 플랫폼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려면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하여 실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국방 노력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최선의 관점에서 반영하는 새로운 병력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¹⁰⁾

노트는 국방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비용증가로 인해 전 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국방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곧 국방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절감 혹은 폐지할 것임을 의미했다. 특히 “플랫폼과 무기 간의 투자 균형을 조정”한다는 것은 노트에게 최신 무기에 보다 더 집중한다는 것이었고, 국방예산 집행의 그러한 효율성 추구는 삼군 중 해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트는 플랫폼보다 최신 무기 보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해군에게 있어 이러한 무게중심의 이동은 수상함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10)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4.

21. 정부의 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영국의 해양 기여의 미래 형태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22.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해양전의 모든 주요 무기 플랫폼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과 비용은 대칭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적의 개발 능력에 맞춰 최고 수준의 모든 유형의 플랫폼을 대량으로 유지할 여력이 없는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강조점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간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규모의 수상함대를 유지함과 동시에, 소련의 최신 공중 발사 및 해상 발사 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독자 작전에서 방어에 필요한 고가의 정교한 함정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¹¹⁾

당시 영국 국방계획의 우선순위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 임무에 있었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었고, 1981년 이전부터 영국이 고수했던 국방 기조였다.¹²⁾ 영국은 1956년 ‘수에즈 위기(The Suez Crisis)’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1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영국군 감축을 결정했고, 1975년에는 3개의 공수여단과 낙하산 여단을 해체하기로 하며 나토 역외 지역에서의 역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³⁾ 이는 영국 국방력의 주요 전개 범위를 영국 본토와 유럽, 동대서양 정도로 한정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1981년 국방백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⁴⁾

11)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8.

12) Peter M. Jones, “British Defence Policy: The Breakdown of Inter-party Consensu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1987): 111-114.

13) Simon C. Smith, “Britain’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Persian Gulf: A Pattern Not a Puzzle,” *Journal of Imperial & Commonwealth History*, vol. 44 (2016): 328-351.

14)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5.

영국 국방계획의 핵심이 소련으로부터의 유럽 방어와 소련의 핵잠수함 대응에 있었던 만큼, 노트에게 영국 해군 재래식 전력의 핵심 요소였던 함포를 장착한 전함과 상륙함과 같은 기존 수상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트는 다가오는 시대의 해군 전력을 동대서양에서 대잠전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SSN)의 운용 및 육상에서 발진하는 해상초계기, 최소한의 수상 호위함으로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백서 도입부터 강조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영국 해군의 해상 원정 전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노트는 해병대 폐지까지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인트레피드 함(HMS Intrepid)과 피어리스 함(HMS Fearless)과 같은 상륙수송함(Landing platform dock, LPD)만 폐하기로 결정했다.¹⁵⁾ 원정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건조 및 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항공모함도 감축 대상이 되었다. 노트는 당시 영국이 보유한 구형 항공모함이었던 헤르메스 함(HMS Hermes)¹⁶⁾과 3척의 인빈시블급 경항모 중 한 척을 매각하기로 했다. 호위함과 구축함 또한 기존 65척에서 50척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8척은 예비함으로 남겨두기로 했다.¹⁷⁾

1981년 노트의 국방백서에서 드러난 향후 계획들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감축의 대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군이 바

15) A. Dorman, "Back to the Future: the Royal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A. Dorman, M. Smith and M. Uttley (eds),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Basingstoke: Macmillan, 1999, p. 172. 상세한 결정과정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ndrew Dorman,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vol. 15 (2001): 107-108.

16) 헤르메스는 1986년 인도에 매각되었다.

17)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10.

로 해군이라는 점이였다. 당연하게도 영국 해군 내에서 뿐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반발과 심각한 우려가 표출되었다.¹⁸⁾ 노트의 이러한 국방정책 기조는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비판받았는데, 비판의 가장 큰 근거는 그가 국방 문제를 오직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노트와 국방부 참모들은 냉전이라는 큰 틀에서 군사, 외교, 정치, 경제의 모든 측면들을 고려했겠지만, 그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한정된 재원으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 예산의 문제는 노트에게 있어 소련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확실하다.

사실 대처는 1979년까지만 해도 국방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198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의 전체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영국의 경제 부흥 계획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국방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대처가 전임자인 프랜시스 핼(Francis Pym)을 노트로 교체한 것은 바로 노트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할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¹⁹⁾ 노트는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그가 보기에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국방예산의 확충안과 지출 구조를 수정하는 데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노트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운영분석국(Defence Operational Analysis Establishment, 현재는 Defence Operational Analysis Centre로 변경)의 연구 결과를 크게 신뢰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동대서양에서 소련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18) 일례로 국방부 정부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이었던 키스 스피드(Keith Speed)는 노트의 국방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질되었다. 스피드는 이후 보수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의 국방정책을 비판하는 데 선두에 섰다.

19) Edward Hampshire, "Strategic and Budgetary Necessity, or Decision-making 'Along the Grain'? The Royal Navy and the 1981 Defence Review,"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2016): 959.

서는 수상함보다 해상초계기와 핵공격잠수함이 훨씬 더 효율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이를 해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트에게 이러한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이 연구를 받아들이면 군함수를 줄일 수 있고, 군함수가 줄어들면 교체 주기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⁰⁾ 따라서 노트는 상륙함을 비롯한 수상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미사일에 취약한 수상함을 다수 운영하는 것보다 미사일과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해군은 노트의 이러한 분석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방부와 재무부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 그 결과 노트의 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 2월 영국은 항공모함 인빈서블(HMS Invincible)을 1억 7,500만 파운드에 호주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고, 상륙함을 교체 없이 폐기하기로 한 결정도 반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82년 3월 포클랜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20) Dorman,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102-103.

3. 포클랜드 전쟁의 경과와 전쟁 양상

〈표 1〉 전쟁 경과²¹⁾

1982년 3월 19일	아르헨티나 고철 노동자들이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하여 아르헨티나 국기를 게양
3월 22일	영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공식 항의서를 보냄.
3월 26일	아르헨티나 해병대가 채빙선 바히아 파라이스(Bahía Paraíso)를 타고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
3월 30일	아르헨티나 항공모함, 호위함 및 수륙양용 부대가 바다로 출동
4월 2일	아르헨티나 특공대가 스탠리 근처에 상륙하고 대규모 상륙군이 뒤따라 상륙, 정부 청사 포위 공격 후 영국 주둔군 항복
4월 3일	영국 정부는 필요 시 포클랜드 제도 탈환을 위한 기동부대 출항을 발표
4월 5일	영국 기동부대 남대서양으로 출발
4월 12일	영국이 포클랜드 주변 200마일을 해상제한구역(Maritime Exclusion Zone, MEZ) ²²⁾ 으로 선포, 4월 30일에는 전면제한구역(Total Exclusion Zone, TEZ)이 됨.
4월 21-25일	영국군 사우스조지아 섬 탈환
4월 29일	영국 기동부대 MEZ 도달
5월 2일	영국 핵잠수함 컨커러(HMS Conqueror)의 어뢰에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너럴 벨 그라노 호(General Belgrano) 침몰
5월 4일	셰필드 함(HMS Sheffield)이 아르헨티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엑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침몰
5월 20일	유엔(UN)에서 마지막 실질적 평화회담 결렬

21) Edward Hampshire, *The Falklands Naval Campaign 1982: War in the South Atlantic* (Oxford: Osprey Publishing, 2021), Chronology.

5월 21일	영국군 산 카를로스(San Carlos) 상륙작전 시작
5월 21-25일	산 카를로스 워터 전투(Battle of San Carlos Water).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공습으로 아덴트함(HMS Ardent), 엔테로프함(HMS Antelope), 코벤트리함(HMS Coventry), 대형 수송선 애틀랜틱 컨베이어(Atlantic Conveyor)가 침몰, 이외 다수 함정들도 피해를 입음. 상륙군과 군수물자가 무사히 상륙
5월 28-29일	구스 그린 전투(Battle of Goose Green)
5월 29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공습, 영국 측 피격된 함선 없음.
6월 11-14일	스탠리 전투(Battle for Stanley), 영국군 마운트 해리엇(Mount Harriet), 투 시스터즈(Two Sisters), 롱던 산(Mount Longdon)에 대한 공격에 이어 와이어리스릿지(Wireless Ridge)와 텀블다운(Tumbledown) 공격
6월 12일	글러모건함(HMS Glamorgan)이 엑조세에 피격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 항복, 포클랜드 전쟁 종료

포클랜드 전쟁은 1982년 3월 19일 사우스조지아 섬에 허가 없이 상륙한 아르헨티나 고철 상인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게양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포클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영국 남극탐사대(British Antarctic Survey)의 기지였고 포클랜드 제도에 종속된 섬이었다. 3월 26일 아르헨티나는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격시켰다. 3월 말이 되어서야 영국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에 없었던 이 남대서양에서의 사건이 중대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월 31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로 관심을 돌렸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점령할 의도로 상당

22) MEZ는 20세기 초부터 교전 당사국들이 무력충돌 시 광범위한 해양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전장관리를 위해 설정한 해양 구역 개념으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역의 적법성은 주로 구역의 기능과 교전국이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하는 집행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Raul Pedrozo,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9 (2022): 527-528.

한 규모의 기동부대를 파견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²³⁾ 영국은 뒤늦게 미국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침공을 중단시키려는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아르헨티나 기동부대는 4월 1일 야간에 포클랜드 제도의 포트 스탠리(Port Stanley)에 도착하여 포클랜드 점령 작전인 ‘로사리오 작전(Operation Rosario)’을 개시했다. 4월 2일 아르헨티나군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여 한 개 소대만 남아있었던 영국 해병대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3일에는 사우스조지아 섬을 점령하며 사실상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게 된다.

당시 포클랜드에는 경무장한 쇠빙초계선인 인듀런스(HMS Endurance)와 수도인 스탠리에 주둔한 해병대 한 소대(해병 68명, 해군 소속 수로학자 11명) 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에 대한 수적 열세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노트의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나듯, 영국군의 우선순위는 소련에 대한 대응이었고 해외 주둔군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냉전시대 그 어떠한 전략적 이점도 없었던 포클랜드는 영국 국방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해외 기지였다. 이에 해군에 대한 감축까지 더해져 포클랜드 주둔군은 축소된 상태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침공 당시 유일한 영국 함정이었던 인듀런스는 전투용 함정이 아니었고 1982년에 교체 없이 퇴역시킬 예정이었던 배였다.

영국에 부정적인 또 다른 요소는 포클랜드 제도의 지리적 위치였다.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동쪽으로 400마일 정도 떨어진 데 반해, 영국에서는 남서쪽으로 무려 8,00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다. 이는 영국이 자국의 육상 기반 방공망에서 벗어나 바다를 통한 장거리 원정을 감행해야 한다는

23) Lawrence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New York: Routledge, 2005), xvii.

것을 의미했다. 당시 포클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군사 시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벨리즈(Belize,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시)와 어센션 섬(Ascension Island, 남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에 있었고, 이러한 시설은 긴급 작전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8,000마일 거리, 배로 약 3주가 걸리는 영국 본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²⁴⁾ 따라서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해상전이 될 것이었고, 영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에 상륙군을 상륙시키고 이후 육상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영국은 4월 2일 날아온 이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당황했으나, 대처 정부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쟁이라는 강경한 대응책을 선택하여 바로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한 기동부대(Task Force)를 구성했다. 4월 5일, 포트머스에서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원정 기동부대가 출동하면서 작전명 ‘코퍼레이트 작전(Operation Corporate)’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중해, 대서양에서도 전투·지원함정들이 합세하면서 영국은 총 44척의 전투함정, 22척의 군수지원함, 약 200대의 항공기, 그리고 9,500여명의 지상 및 상륙부대 병력을 포클랜드에 투입했다. 또한 영국은 59척의 민간 선박을 징발, 개조하여 각종 무기와 탄약, 연료, 식량 등의 수송에 동원했다.²⁵⁾

24) 게다가 남반구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하고 영국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대서양 원정 시 동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미국 또한 당시 레이건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영국과 포클랜드 사이에는 전쟁 지원을 위한 적절한 기지가 없었다. Kenneth L. Privratsky, *Logistics in the Falklands War*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4), 5-7.

25)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영국 전력의 상세한 목록과 함선의 제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오. David Brown,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London: Guild, 1987), 358-370.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군사적 목표는 포클랜드 제도의 탈환이었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사우스조지아 섬이었다.²⁶⁾ 전쟁 초반에는 영국의 특수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륙을 위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 4월 21일 영국 특수부대 SAS(Special Air Service)와 SBS(Special Boat Service)가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로 실패했고, 25일 다시 특수부대, 해병대가 포함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하여 사우스조지아 섬을 탈환했다.²⁷⁾ 4월 29일에는 영국 기동부대가 출항 24일 만에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다음날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200마일을 ‘전면제한구역(Total Exclusion Zone, TEZ)’으로 선포하고, 영국 국방부의 허가없이 이 해역에 들어오는 군함, 항공기를 국적 불문 공격할 것임을 밝혔다.²⁸⁾

5월 1일, 영국은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포트 스탠리 비행장과 구스그린(Goose Green, 동포클랜드의 정착지)을 공습했다. 아르헨티나 또한 잠수함을 이용해 영국의 수상함을 공격했다. 이때까지 양측은 서로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5월 2일 영국의 핵추진잠수함(SSN) 킨커러(HMS Conquerer)가 포클랜드 남서쪽에서 기동중이던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 9,500톤)를

26) 영국이 포클랜드 본토가 아닌 사우스조지아 섬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것은 포클랜드 작전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Robert Redding, Anna Beier-Pedrazzi, Gina Salvia, Stefanie Mitchell, and James George,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 Journal*, vol. 6 (2020): 23.

27) Redding,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23-25.

28) Pedrozo,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529.

어뢰 공격으로 격침시키면서 국면이 전환되었다.²⁹⁾ 이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해군은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진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대잠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육지 기반 방공망을 벗어난 해역에서 전투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포클랜드에서 철수했다.³⁰⁾ 이후 아르헨티나 해군의 수상함들은 자국 연안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에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5월 4일 아르헨티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프랑스제 대함 미사일 엑조세(Exocet)에 영국의 Type 42 구축함인 셰필드(배수량 4,800톤)가 피격당하면서 침몰했다.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화재로 셰필드는 피격 6일 후 침몰했다. 이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치열한 공대공, 함대공 전투를 이어갔다.

영국은 포클랜드 탈환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지상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새벽, 포클랜드 본토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상륙지점을 산 카를로스(San Carlos)로 잡고 영국 상륙함 피어리스와 인트레피드가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제3해병여단 중심의 영국군 병력 4,500여 명이 수상함의 함포 사격과 해리어

29) 이 공격으로 제너럴 벨그라노가 침몰하면서 아르헨티나군 약 350여명이 전사했다. 이 숫자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포클랜드 전쟁 중 사망한 아르헨티나군의 절반 이상이 이 벨그라노 침몰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함선은 TEZ 밖 30해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영국의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한 350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 수는 국제법과는 별개로 도덕적으로 전쟁의 괴잉 공격의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Saad Gul, "The Bells of Hell: An Assessment of the Sinking of ANR General Belgrano in the Context of the Falklands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8 (2005): 81-120; Thomas Eason, Oliver Daddow, and Rory Cormac, "From Secrecy to Accountability: The Politics of Exposure in the Belgrano Affair,"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2020): 542-560.

30)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253-254.

전투기의 엄호 아래 포클랜드 동부 북서쪽의 산 카를로스에 상륙했다. 아르헨티나는 5월 21-25일 사이에 다수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영국군 상륙 지점에 대한 필사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해군의 Type 21(배수량 3,200톤) 호위함 2척인 엔틸로프(HMS Antelope)와 아던트(HMS Ardent), Type 42 구축함 코벤트리(HMS Coventry), 대형 수송선 애틀랜틱 컨베이어 (Atlantic Conveyor)가 격침되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산 카를로스 주변 16km 이내의 주요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5월 27일, 이제 영국군은 포클랜드에서의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5월 28-29일 영국군 공수대대가 다윈(Darwin), 구스그린을 점령했다. 이는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 스탠리로 향하는 진격로의 측·후방을 엄호하고, 다윈과 구스그린의 항만, 비행장을 확보하여 아르헨티나군의 병력 증원 및 군수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육군 제5여단도 합세하면서 영국군은 6월 11일부터 켄트 산(Mount Kent), 롱던 산(Mount Longdon), 텀블다운 산(Mount Tumbledown) 등의

31) 이 애틀랜틱 컨베이어의 침몰은 당시 영국 상륙군에 큰 타격이었다. 마이클 클랩 준장의 참모로 상륙함 피어리스에 탑승했던 마이클 앰블러 중령(Lieutenant Commander Michael Ambler, 2009년 작고)은 포클랜드 전쟁에 관한 미공개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5월 25일)우리는 항공모함이 엑조세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애틀랜틱 컨베이어가 피격되었다는 소식을 고주와 회로를 통해 들었다. [이 선박은] 스탠리 공격에 필요한 치누크 전투기 대부분과 막대한 양의 물자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았다. [애틀랜틱 컨베이어는] 그날 저녁 산 카를로스 로 들어와 하역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매우 침울한 분위기였고....” 그 결과 전후 대처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원정을 위한 능력에서 이견 없이 개선한 부분이 바로 대규모 군수물자 수송 라인의 확대였다. 중요한 물자가 한 척의 취약한 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의 위험성을 포클랜드 작전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Helen Parr, “COMAW Staff and HMS Fearless 1982,”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38.

전방 500-1,000m 고지에서 최종 목표인 포트 스탠리 탈환을 위해 아르헨티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영국군은 6월 14일 새벽 6시에 아르헨티나군의 마지막 요새를 함락 시켰고, 3시간 후 아르헨티나군은 영국군에 항복했다.³²⁾

포클랜드 전쟁은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 측 전사자는 민간인 5명을 포함하여 255명으로 집계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약 746명으로 추산되었다. 영국은 전술한 수상함 이외에도 헬리콥터 24대와 고정익 항공기인 해리어 전투기 10대를 잃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물질적 피해는 더 막대했다.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거의 모든 무기와 장비가 손실 및 손상되었다. 순양함 벨그라노 외에도 여러 척의 소형 함정이 침몰했으며, 100대 이상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가 격추되거나 추락했다. 작전 중 격추된 항공기의 수는 약 70대로 추정되었다.³³⁾

포클랜드 전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해상전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전력이 전쟁 승패에 핵심 요소였다. 따라서 1982년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포클랜드 전쟁을 둘러싼 평가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특히 영국 의회에서는 직전 해에 발간된 1981년 노트의 국방백서과 관련하여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가 노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있는 해군 전력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즉,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가 기존 영국 해군 전력의 유효성을 증명한 것인지, 아니면 노트의 국방개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포

32) 지상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Michael Clapp,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Freedman,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468-563.

33) Charles Maisonneuve,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in *The Falklands War*, Martin Middlebrook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2), 170-171.

클랜드의 교훈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영국의 국방계획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는 영국의 국방정책과 해군 전력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근거를 제공했을까?

4. 포클랜드 전쟁으로 본 영국 해군 전력에 관한 분석

1982년 12월 발간된 『포클랜드 작전: 교훈』(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이하 『교훈』)은 영국 정부가 포클랜드 전쟁을 자체 평가한 최초의 백서였다.³⁴⁾ 포클랜드 전쟁의 결정부터 승리까지 모두 대처 정부의 결정이고 몫이었기 때문에 『교훈』에서 드러난 당시 영국 국방력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었고, 논란의 1981년 국방백서 또한 포클랜드 전쟁 승리에 일조한, 즉 ‘효율적이고 유연한’ 군사력을 갖추게 한 적절한 정책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훈』은 영국군의 승리에 기여한 국방 자산을 치켜세우고, 정책 수정 혹은 방향 전환이 아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군은 준비 상태, 전투력, 지도부의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상대였다. 영국 해군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몇몇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1981년 국방백서에서 축소하려고 했던 일부 해군 전력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34) 『교훈』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포클랜드 제도 탈환 작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 2부는 이 작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에 관한 분석, 3부는 향후 나토와 그 밖의 역외 지역에서 영국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London: HMSO, 1982.

밝혀졌다.

가. 방공과 상륙전의 중요성

포클랜드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는 영국 해군의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아르헨티나 공군, 해군의 항공기 사이에서 벌어졌다. 두 국가 사이의 함대공, 공대공 전투는 양측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전쟁의 중요한 국면이었던 만큼 영국의 방공 능력은 포클랜드 작전 분석의 중요한 주제였다. 8대의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격추한 영국 구축함에 장착된 대공 중거리 미사일인 시 닷트(Sea Dart)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나, 영국의 수상 전력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적의 공대함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련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도록 맞춰진 영국 함대의 미사일 시스템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저고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특정 방향에서 100m 이상의 고도로 접근해오는 소수의 대공 표적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해수면에 근접하는 10m 이하의 저고도 비행(sea-skimming)이 가능한 고성능 대함미사일이나 고속 비행능력을 갖춘 다수의 항공기를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³⁵⁾ 그 결과 영국 수상전투함 2척이 아르헨티나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10척은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에 피격되었다.³⁶⁾ 그리고 3장에서 언급된

35) Graham Thomas, "The Falklands Campaign: Early Lessons," *British Army Review*, No. 173 (2018): 33-34

36) 영국 수상함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투하된 450kg의 단순 폭탄으로 인해 발생했고, 아르헨티나군의 쉬페르 에탕다르(Super Etandard) 전투기와 엑조세 미사일의 조합은 영국 해군 함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Alastair Filan,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London: Frank Cass, 2004), 54-55.

바와 같이 이들 가운데 4척이 침몰했다.

영국의 방공 능력은 무기 뿐 아니라 항공모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포클랜드 작전에서 영국은 헤르메스와 인빈서블 두 척의 항공모함을 출격시켰는데, 이들은 2만 톤 전후의 경항모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지휘통제함과 방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인빈서블은 신형 함정으로 영국은 이를 포함해 세 척의 인빈서블급 항모를 운용중이었고, 포클랜드 작전은 이 신형 경항모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장이었다. 물론 이들은 항공모함의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했으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가장 취약점을 드러냈던 함대 방공 능력은 영국이 대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는 평가 또한 받았다.³⁷⁾ 전후 분석에 따르면, 영국 해군의 항모 전단은 2척의 소형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3척의 측량선(survey ship), 2척의 구형 강습함, 8척의 구축함, 15척의 호위함, 2척의 연안 순찰함, 5척의 기뢰대응 트롤선(mine-countermeasure trawler), 1척의 쇄빙초계함 등 35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은 공중조기경보기(airborne early warning, AEW)가 부족하고, 방공 항공기가 28대의 시 해리어(Sea Harriers)와 14대의 RAF GR3 해리어에 불과하며,³⁸⁾ 근거리 대공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호위함이 있는 등 많은 미흡한 점이 드러난 소규모 함대였다.³⁹⁾

즉 경항모의 적재량 한계로 영국군은 전체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항공기를 탑재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국 전투기의 종류와

37) 1982년 기준으로 영국의 마지막 재래식 대형 항공모함이었던 아크 로얄(HMS Ark Royal)은 이미 1979년에 퇴역한 상태였다.

38)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19.

39) Filan,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70.

수, 속도를 제한했고 특히 조기경보기(AEW)의 부재가 전후 영국군의 방공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장거리 공중 레이더(AWACS)의 대폭적인 강화, 근접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천후 전투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⁴⁰⁾ 전쟁 직후, 캐스퍼 와인버거(Casper Weinberger) 미 국방부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알린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 중 하나로 다음을 언급했다.

해상/상륙 작전에서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은 제한된 수의 시 해리어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소형 항공모함을 사용했지만, 작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형 항공모함은 소량의 공중 공격과 방어만 제공했습니다. 사실 장거리 항공경보시스템과 공중공격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⁴¹⁾

한편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작전상의 중요한 부분은 가장 위협성이 높은 상륙전의 성공이었다. 산 카를로스 상륙전을 비롯한 포클랜드 지상 작전들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군의 역할은 전쟁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영국 정부는 『교훈』에서 해병대와 상륙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으나, 상륙군에 대한 결론은 역외 작전에서의 향후 역할의 중요성이 아닌 나토 내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처 정부의 국방 정책 우선순위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트 국방장관은 1982년 12월 14일 『교훈』의 내용에

40)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41) Reagan Library, Simi Valley, CA: Falkland Islands Box 103: “Military Lessons of the Falklands”, Weinberger memorandum for Reagan, 19 July 1982.

관한 하원에서의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포클랜드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이 나토 내에서 영국의 네 가지 주요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현대화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⁴²⁾ 이는 해병대의 축소와 상륙함의 추가 운용이 없을 것임을 밝힌 1981년 국방백서의 입장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대처 정부는 나토 방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영국군이 역외 전쟁이었던 포클랜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노트의 정책을 군의 유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즉, 나토 방어에 최적화된 영국군이 포클랜드 승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무력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것이다. 상륙부대 축소와 더불어 불거진 쟁점은 이 상륙전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상함의 함포에 관한 것이었다.

나. 수상함과 함포전 유용성의 재확인

수상함 함포의 유용성은 포클랜드 전쟁이 보여준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정익 항공기의 발달과 다양한 미사일 체계와 같은 첨단화된 무기로 인해 전통적인 해전 무기인 함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중요성이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해군 화력 지원(naval gunfire support, 이하 NGS)’으로 명명되는 이 무기체계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유용한 전력으로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면 영

42)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cc128-139.

국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NGS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혀 유용하지 않은 무기체계란 인식이 확산되었다.⁴³⁾ 특히 미사일의 발달은 방공과 수상작전 모두에서 함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서 함포가 아예 없거나 하나만 장착된 함정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은 NGS가 여전히 중요한 전력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날씨가 불안정하여 근거리에서 공중 엄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남대서양에서의 상륙전에서 NGS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 우선 NGS는 영국군의 상륙지점을 적이 예측할 수 없도록 산 카를로스 이외의 지점에서도 포격을 가했다. 상륙작전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마이클 클랩 준장(Commodore Michael Clapp)은 “우리의 목표는 단 한 번의 쿠데타로 스탠리에 직접 또는 아주 가까운 곳에 미 해병대 방식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확실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⁴⁴⁾ 이는 산 카를로스 뿐 아니라 최종 목표인 스탠리와 더 가까운 지점에서도 NGS를 사용하여 적을 기만하고 영국군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특히 해군의 포격이 핵심이었다. 약 100-200발의 포탄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비대칭적인 패턴으로 발사되어 적에게 혼란을 야기했다.⁴⁵⁾

43) 이러한 인식은 영국의 주요 활동 영역이 태평양이 아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적의 전력을 마비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발성 집중 포격이 사용되었지만, 태평양에서는 상륙 작전에 앞서 적의 방어를 압도하고 파괴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포격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Christopher Yung, *Gators of Neptune: Naval Amphibious Planning for the Normandy Invasion*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6), p. 79.

44) Michael Clapp and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 s: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Barnsley, 2007), p. 100.

45) Steven Paget,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War in History*, vol. 24 (2017): 218(DOI: 10.1177/096834

NGS의 파괴력과 적의 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중화기가 부족했던 영국 상륙군을 엄호하고 적의 시설을 무력화하면서 코퍼레이트 작전 성공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1982년 5월 21일, 산 카를로스에 상륙이 시작되었을 때, 산 카를로스 인근에 있었던 패닝 헤드(Fanning Head)에 약 60명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의 소규모 부대가 있었고 이들은 영국 상륙군을 저지할 수 있는 위협 요소였다. 이 때 영국 해군은 특수부대와 함께 아르헨티나군이 산 카를로스 섬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다.⁴⁶⁾ 맥매너스 대위(Captain McManners)는 5월 26일 폭스 베이(Fox Bay) 공습 당시 NGS가 서 포클랜드 주둔지를 봉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⁴⁷⁾ 지상군의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지원은 지상전을 직접 지원하는 NGS의 화력이었다. NGS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국군에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다.

6월 11일과 12일에 있었던 낙하산 연대 제3대대의 룡던 산 공격이 대표적인 예였다. 이 대대는 룡던 산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병과 어벤저함(HMS Avenger)의 NGS 지원을 받았다. 룡던 산 전투는 밤새도록 격렬한 전투로 이어졌고,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었다. 공격은 초반에 성공을 거두었고 낙하산 제3대대는 빠르게 1차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지만 적의 방어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화력 지원, 특히 어벤저가 발사한 165발의 중화기 포탄은 공격 성공

4515603744journals.sagepub.com/home/wih).

46) Robert S. Bolia, "The Battle of Darwin-Goose Green," *Military Review*, v ol. 85 (2005): p. 50.

47) Paget,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224.

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⁴⁸⁾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NGS는 지상군 공격에 앞서 적의 진지를 약화시키고 적의 공격 및 반격 능력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었다.⁴⁹⁾ 수륙양용전의 특성과 중포의 부재, 다른 형태의 화력을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결합되어 NGS는 영국이 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NGS의 한계도 드러났다. 제3특공여단 사령관이었던 줄리안 톰슨(Brigadier Julian Thompson)에 따르면 당시 영국 해군 NGS의 파괴력에는 한계 또한 존재했다. “[지상군의] 경포나 NGS 4.5인치 주포 모두 고정 방어 진지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일부 포격으로 적의 일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포탄이 실제로 떨어지는 동안 적을 제압하는 데에만 의존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4.5인치 포가 효과적이기는 했으나 큰 목표물을 파괴하기에는 부족했고, 5인치 포였다면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후 등장했다. 또한 영국 해군의 함정들은 NGS 제공 외에도 대함 공격, 대공 유도탄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또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함정이 사격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격 적시성이 지상 포병의 대응에 비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으며, 수상함은 공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 시 NGS를 주간이 아닌 어두운 야간에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함포의 중요성이 이미 낮아진 시대에 건조

48) Sandy Woodward, *One Hundred Days: The Memoirs of the Falklands Battle Group Commander* (Annapolis: Harper Press, 1992), p. 326.

49) 애로우(HMS Arrow), 어벤저, 글러모건, 아머스(HMS Yarmouth)와 같은 전함이 NGS를 수행했다.

50) Clapp and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p. 262.

된 전함에서 나타났다. 포클랜드 작전에 투입된 신형 Type 42 구축함과 Type 21 호위함에는 각각 4.5인치 주포가 하나씩만 장착된 반면, 구형 카운티급 구축함과 Type 12 호위함에는 두 개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중 신형 함선들에는 최신식 주포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주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비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할 수 없었다. 구스 그린에서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호위함 Type 21이었던 애로우의 주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장시간 사격 지원 시 단일 포신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후속 함정인 리안더급(Leander-Class) 호위함의 배치 II 및 III(Batch II and III)과 신형 Type 22 호위함에서 배의 길이를 줄이고 엑조세 미사일 발사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포 무장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⁵¹⁾

이처럼 함포를 축소하고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함포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었던 당시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는 플랫폼보다 최신 무기를 중요시 여기는 노트의 1981년 국방백서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지점은 전후 전쟁의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상함의 규모와 함포 수 축소라는 해군의 수상 전력에 관한 노트의 정책이 과연 옳았던 것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정밀유도무기의 발달로 함포의 역할은 과거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은 NGS의 활용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NGS의 다양한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종합해 보면, 포클랜드에서 영국의 승리는 1981년 국방백서에

51) Ian Speller, "Delayed Reaction: UK Maritime Expeditionary Capabilities and the Lessons of the Falklands Conflict."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18 (2002): 370.

서 나토 방어를 위해 제외되거나 감축된 구형 플랫폼들이 1982년에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신형 인빈서블(배수량 19,500톤)보다 퇴역 예정이었던 구형 항공모함인 헤르메스(배수량 28,700톤)가 적재량이 더 커 해리어 전투기를 두 배나 많이 탑재 할 수 있었다. 포클랜드 작전에서 헤르메스에는 15척의 시 해리어와 6척의 RAF GR3 해리어, 9대의 헬기, HMS 인빈서블에는 10척의 시 해리어와 10대의 헬기가 탑재되었다.⁵²⁾ 또한 1960년대에 건조되어 교체 없이 퇴역 예정이었던 구형 상륙함 피어리스와 인트레피드와 같은 특수 상륙함이 없었다면 포클랜드 작전의 핵심이었던 상륙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안 스펠러(Ian Speller)는 “영국군은 포클랜드 분쟁에서 놀라운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전 역량의 노후화된 유산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⁵³⁾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노트의 국방백서와 여기서 파생된 해군에 대한 군비 삭감 및 해군 전력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 직후 영국 정계에서는 당시 영국 해군의 전력 구성이 포클랜드 작전에 얼마나 적합했는지, 전쟁에서 드러난 취약점에 국방부 장관인 노트의 국방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⁵⁴⁾

보수당 의원 패트릭 메이휴(Patrick Mayhew, Baron Mayhew of Twysden)는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전쟁 역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52) Brown,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358.

53) Speller, “Delayed Reaction,” 370.

54) 이 논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답음을 참고하십시오.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17 January 1983.

발언했다.

그러나 저는 포클랜드 제도의 가장 큰 교훈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싸울 의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전 세계와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오래되고 비참한 영국의 실패입니다. 1914년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했을 때,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우리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포클랜드 제도가 보여주었듯이, 가장 위험한 길은 영국의 의도가 불확실한 회색 지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⁵⁵⁾

하지만 전쟁 억지력에 대한 『교훈』의 문제의식이 너무 안이하며 대처와 노트의 정책적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군 제독 출신 피터 힐-노튼(Peter Hill-Norton)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몇 가지 놀라운 누락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합리적인 국방 정책의 핵심에 있어야 하는 억지력의 명백한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실패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전략적 교훈이며, 존 노트 경은 지난달 다른 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981년 국방백서에 포함된 여러 결정이 이러한 억지력 실패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중 일부는 다행히도 지금은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인빈서블을 매각하려는 의도를 언급하며, 여러분 모두 이 백서 112항을 보셨으리라 확신하며, 이 백서에서 그녀[인빈서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침략의 실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인튜런스

55)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17 January 1983, column 1206.

를 처분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 두 척의 공격함이 없었다면 원정작전이 전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⁵⁶⁾

노트의 국방백서와 포클랜드 전쟁 사이의 괴리는 노트가 축소하거나 버리고자 했던 패였던 항공모함, 수상전함, 상륙함이 포클랜드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국방장관 노트는 ‘변화’가 아닌 1981년 계획의 ‘지속’과 ‘일부 개선’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대처 정부와 보수당의 정치적 결정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노트는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 해군이 해양 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는 야당 의원의 날선 비판에 대해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에서 꽤 잘해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자신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재래식 해군에 이전 노동당 정부보다 7억 파운드를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해군 함정 건조는 지난 19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삭감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우리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⁵⁷⁾

결과적으로 대처 정부는 포클랜드 전쟁이 나토 임무에 집중되어 있는 현 영국군의 전력으로도 나토 역외 지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결론지으며, 이후의 개선점 또한 상당 부분 이미 1981년 국방백서에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조치에는 공중급유를 위

56)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column 1208.

57)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한 유류지원함 구매,⁵⁸⁾ 포트 스탠리에 배치된 항공기를 대체할 팬텀 F-4J 전투기 추가 도입, 항공모함, 시 해리어와 치누크 중형 헬기 추가 도입, 상륙수송함(LPD) 및 해군의 모든 Type 42 방공구축함에 대한 새로운 점 방어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쟁 역지력 약화에 일조했다고 비판받은 인빈서블의 매각을 취소한 것이었다. 정부는 인빈서블 급 항모 3척을 유지하고 이 중 2척은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전방 호위함과 구축함의 숫자를 1981년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42척에서 약 55척으로 늘려 유지하기로 했다. 조기경보기 부재의 문제는 여러 대의 시킹 헬기를 개조하여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상륙돌격장갑차, 최신 구축함에 미국의 근접방어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 CWIS)인 Phalanx(레이더로 유도되는 20mm 속사포)를 신속하게 도입했다. 중기적 조치로 해상 스키밍 미사일로부터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형 지대공 미사일인 아스티(Aster) 개발에 영국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⁵⁹⁾

이러한 전력 증강 및 보강은 전후 국방부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항모 매각의 철회와 함정의 대공 방어를 강화한 것을 제외하면 대처 정부는 기존의 나토 중심의 국방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항모 매각을 취소했음에도 3척의 항모 전단이 아닌 2척의 항모 전단만을 유지한 것과 역외 작전의 핵심이었던 상륙함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끝내 보충하지 않았던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수상함정에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장착한 것과 같은 조치는 전략적 재평가의 결과가 아닌 미사일 공격에 대한

58) 영국 정부가 역외 지역 작전을 위해 추가할 부분으로 인정한 분야는 군수 물자 지원 분야로 장거리 항공 수송의 가치와 강력한 공대공 재급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9) Maisonneuve,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138-139.

군함의 취약성 개선이라는 전술적 교훈을 실행하는 데 그친 것이었다. 영국 해군은 여전히 유럽 방어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1982년 이후에도 영국의 유럽 외 지역 관심사는 남대서양이 아닌 인도양과 동아시아 지역이었다. 영국 국방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1990년 이후였다.

5. 나가며

영국 정부와 의회는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는 별개로 대처 정부의 공과(功過)와 노트의 1981년 국방전략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이것이 포클랜드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노트와 정부는 일부 개선점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영국의 가장 큰 위협은 소련으로 나토 중심의 국방전략은 변치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노트와 노트의 지지자들은 당대의 상황에서 영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며, 원정 작전이 발생해도 나토의 우산 아래 다국적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이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았으나, 포클랜드 전쟁의 여파는 해군력 감축 논란으로 노트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결국 노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부의 국방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1983년 선거 전인 1월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양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화한다. 이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국가들은 무력분쟁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처하고 미래 전장

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군이 21세기 테러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육군 특수부대를 감축하고 정규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또한 최근의 전장을 반영한 결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전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연달아 터지면서 대규모의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정규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⁶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 대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제 소수의 특수부대에 의한 작전이 아닌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지상전을 대비하게 된 것이다.⁶¹⁾ 노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포클랜드 전쟁이 당시 국제관계에서 예외적인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노트의 나토 중심 국방전략은 사실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포클랜드 이후 영국은 해외에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미국과 함께 ISIS, 탈레반과 같은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대테러전에 집중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전쟁은 현대 해전사에 방공과 상륙전, 원정수송능력, 전함의 함포 지원, 항공기, 핵잠수함과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 등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클랜드 전쟁이 남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전쟁이 영

60) Mike Glen, "Army cutting thousands of positions over increased focus on China and Russia", *Washington Times*(2024.2.28.),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4/feb/28/army-cutting-thousands-of-positions-over-increased/>.(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Lolota Baldor, "US Army is slashing thousands of posts in major revamp to prepare for future wars", *AP News*(2024년 2월 28일), <https://apnews.com/article/army-cuts-soldiers-recruiting-shortfall-9f2f41cbe512f6330ce6008709e3435b>.(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61) 김동현, "미 육군, 5년 내 정원 2만4천명 감축...특수부대 줄이고 방공 강화", 『연합뉴스』(2024년 2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11700071>.(접속날짜 2024년 3월 5일).

국 국방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처럼 국가의 국방전략에 예외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와 같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를 남겼다.

이 논문은 포클랜드 전쟁의 승패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포클랜드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영국 해군력이 1982년 시점에서 역외 분쟁에 적합한 상태였는지를 분석하고, 전쟁의 결과가 해군과 관련한 영국 국방정책과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예외적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자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1982년 이후 영국 국방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연구 자료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Cmnd 8288, London: HMSO, 1981.
The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Islands (White Paper)” on 14 December 1982, vol. 34, cc128–139.

The UK Parliament, Hansard, “The Falklands Campaign: The Lessons” (Cmnd 8758), Volume 437: debated on Monday 17 January 1983.
Reagan Library, Simi Valley, CA: Falkland Islands Box 103: “Military Lessons of the Falklands.” Weinberger memorandum for Reagan, 19 July 1982.

The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98/91, The Strategic Defence Review White Paper 1998.

2. 저서

Brown, David, The Royal Navy and the Falklands War, London: Guild, 1987.

Clapp, Michael, Ewen Southby-Tailyour, Amphibious assault Falklands: The Battle of San Carlos Wat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Dorman, A, “Back to the Future: the Royal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Edited by A. Dorman, M. Smith and M. Uttley, Basingstoke: Macmillan, 1999.

Filan, Alastair, The Royal Navy in the Falklands Conflict and the Gulf War: Culture and Strategy, London: Frank Cass, 2004.

Freedman, Lawrence, The Official History of Falklands Campaign, Vol. II: War and Diplomacy, New York: Routledge, 2005.

Hampshire, Edward. *The Falklands Naval Campaign 1982: War in the South Atlantic*. Oxford: Osprey Publishing, 2021.

Maisonneuve, Charles. "The Falklands Islands: Military Lessons Learned." In *The Falklands War*. Edited by Martin Middlebrook.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2.

Privratsky, Kenneth L. *Logistics in the Falklands War*. South Yorkshire: Pen & Sword, 2014.

Woodward, Sandy. *One Hundred Days: The Memoirs of the Falklands Battle Group Commander*. Annapolis: Harper Press, 1992.

Yung, Christopher. *Gators of Neptune: Naval Amphibious Planning for the Normandy Invasion*.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6.

3. 학술지 논문

Ambler, Sophie Thérèse, Thomas C. Mills. "New Perspectives on the Falklands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7–13,

<http://doi.org/10.1163/24683302-43010002>

Bolia, Robert S. "The Battle of Darwin–Goose Green." *Military Review*, vol. 85 (2005): 45–50,

<https://www.proquest.com/docview/225316923?accountid=15179&source-type=Trade%20Journals>

Dorman, Andrew. "John Nott and the Royal Navy: The 1981 Defence Review Revisite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vol. 15 (2001): 98–120, <https://doi.org/10.1080/713999409>

Eason, Thomas, Oliver Daddow, and Rory Cormac. "From Secrecy to Accountability: The Politics of Exposure in the Belgrano Affair."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2020): 542–560,

[10.1177/1369148120930588journals.sagepub.com/home/bpi](https://doi.org/10.1177/1369148120930588journals.sagepub.com/home/bpi)

Gul, Saad. “The Bells of Hell: An Assessment of the Sinking of ANR General Belgrano in the Context of the Falklands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8 (2005): 81–120,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nwykinllw18&div=12&collection=journals>

Hampshire, Edward “Strategic and Budgetary Necessity, or Decision-making ‘Along the Grain’? The Royal Navy and the 1981 Defence Review.”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2016): 956–978,

<https://doi.org/10.1080/01402390.2016.1220365>

Jones, Peter M. “British Defence Policy: The Breakdown of Inter-party Consensu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1987): 111–131,

<https://www.jstor.org/stable/20097107>

Lauricica, Jorge O. “Lessons From Failure: The Falklands/Malvinas Conflict.” *Seton Hall Journa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2000): 79–9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whith1&div=16&collection=journals>

Paget, Steven. “Under Fire: The Falklands War and the Revival of Naval Gunfire Support.” *War in History*, vol. 24 (2017): 217–235,

<http://doi.org/10.1177/0968344515603744>

Parr, Helen. “COMAW Staff and HMS Fearless 1982.”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vol. 43 (2023): 14–44,
<http://doi.org/10.1163/24683302-43010003>

Pedrozo, Raul. “Maritime Exclusion Zones in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9 (2022): 526–53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intyb/ilsusnwc0099&div=23&collection=journals>

Redding, Robert, Anna Beier–Pedrazzi, Gina Salvia, Stefanie Mitchell,
and James George. “War in Falklands: Case Studies in British Special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 Journal, vol. 6 (2020): 18–34,
<https://doi.org/10.1080/23296151.2020.1731267>

Smith, Simon C. “Britain’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Persian
Gulf: A Pattern Not a Puzzle.” Journal of Imperial & Commonwealth
History, vol. 44 (2016): 328–351,
<http://dx.doi.org/10.1080/03086534.2015.1123541>

Speller, Ian. “Delayed Reaction: UK Maritime Expeditionary
Capabilities and the Lessons of the Falklands Conflict.”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18 (2002): 363–378,
<https://doi.org/10.1080/1475179022000024484>

Stransky, Steven G. “Re–Examining the Falkland Islands War: The
Necessity for Multi–Level Deterrence in Preventing Wars of
Aggress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40 (2012): 473–526,
<https://heinonline-org-ssl.access.yonsei.ac.kr/HOL/Page?handle=hein.journals/gjicl40&div=19&collection=journals>

4. 신문기사

Baldor, Lolota. “US Army is slashing thousands of posts in major revamp to prepare for future wars.” AP News(2024년 2월 28일), <https://apnews.com/article/army-cuts-soldiers-recruiting-shortfall-9f2f41cbe512f6330ce6008709e3435b>.(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Glen, Mike. “Army cutting thousands of positions over increased focus on China and Russia.” Washington Times(2024.2.28.),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4/feb/28/army-cutting-thousands-of-positions-over-increased/>.(접속날짜 2024년 3월 7일).

김동현. “미 육군, 5년 내 정원 2만4천명 감축…특수부대 줄이고 방공 강화.” 『연합뉴스』(2024년 2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11700071>.(접속날짜 2024년 3월 5일).

<Abstract>

The Response and Dilemma to Potential Threats Reviewed through the Falklands War

Kim, Kyungmin

This essay will examine the military aspects of the Falklands War as a first step in understanding its multifaceted nature. The Falklands War was an expeditionary operation and was essentially a naval war, and the Royal Navy was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war.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ower of the Royal Navy before and after the Falklands War is a crucial factor in analyzing the nature of the war and British defense policy. Although the UK won the war, it did not enjoy a full victory lap due to the reductions in naval power envisioned in *The United Kingdom Defence Programme: The Way Forward*, published by Defense Secretary John Nott. This essay analyzes the content of the 1981 Defense White Paper and the Royal Navy's performance in the Falklands War and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war and the 1981 defence review. To do so, Chapter 2 will analyze the naval force reductions and the UK's defense plans outlined in the White Paper, while Chapter 3 will examine the nature of the Falklands War through its progression. Chapter 4 considers how the problems with British naval power that have emerged since the war relate to the 1981 defence review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m.

Keywords: Falklands War, Royal Navy, John Nott, 1981 defence review, defence strategy